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

길태식 목사를 강사로 진행된 이집트·말레이시아·스리랑카 선교 출장 시에도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믿는다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열 처녀 중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응답과 축복의 비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과 공의 법칙을 상세히 알면 누구든지 믿음과 순종으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복음으로 온 가족이 변화되고 있다는 콜롬비아 벤징 세무 자매와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은 김미정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756호 2016년 9월 2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복음의 오지에 나타난 놀라운 권능의 역사!

이집트·말레이시아·스리랑카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집트,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에서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가 길태식 목사(대전만민교회 담임)의 인도로 진행됐다.

초교과적으로 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했으며, 무엇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증거된 말씀이 참임이 입증되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힘 있게 전파되었다.

이집트 선교 : 8월 31일 ~ 9월 1일 <응답받는 비결> 및 <교회 부흥의 비결>

첫 집회는 8월 31일, 이집트 탐베디 오순절교회에서 열렸다(사진 5). 지난 3월 정부로부터 법인 정식 등록허가를 취득함으로 이집트에서도 성령의 복음과 만민의 사역을 더욱 널리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사 길태식 목사는 ‘응답받는 비결’(요 5:8~9)에 대해 설교한 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다. 신장 결석으로 고통받던 나빌 성도가 즉시 통증이 사라져 간증하는 등 많은 성도가 치료의 역사를 체험했으며, 소아마비로 평생 걷지 못하고 기어 다니던 성도가 부축받아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9월 1일 오전에는 이집트 오순절교단 목회자 세미나가 총회장 아지즈 모르간 목사가 시무하는 마그하가 오순절교회에서 ‘교회 부흥의 비결’(행 2:42~47)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오순절교단 목회자 외에도 10개 교단의 목회자들과 현지에서 사역하는 콩고,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남수단, 가나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였다.

세미나 후 참석한 목회자들은 “교회 부흥을 위한 이처럼 실질적인 말씀은 평생 처음 들어본다.”고 입을 모았고, 아지즈 모르간 총회장은 “배운 말씀대로 새롭게 시작할 것을 결단하며, 만민중앙교회가 매일 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함께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같은 장소에서 손수건 집회도 열려 맘두흐 성도는 허리디스크 수술 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굽힐 수 있게 되었고, 이맘 성도는 성령의 불을 받아 자궁종양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졌으며, 이 외에도 시력이 회복되는 등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사진 6, 7).

말레이시아 선교 : 9월 4일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9월 4일, 말레이시아 대형 교회인 쿠알라룸푸르 FGA 교회 초청으로 두 차례 집회를 인도하였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신앙 회복을 위해 선교팀을 초청한 것이다.

강사 길 목사는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롬 5:8)에 관해 전한 뒤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다. 오랫동안 이명으로 고통받던 성도가 치료받았고, 척추가 S자로 휘어 있던 성도가 정상이 되었으며, 청력과 시력이 회복되는 등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도들은 은혜와 감동이 넘쳤다(사진 1, 2, 3, 8).

도라이 마니카 장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와 생명의 말씀에 은혜받아 성도들이 무척 행복해했고 믿음이 되었습니다.”라며 향후 지속적인 방문을 요청하였다.

스리랑카 선교 : 9월 6 ~ 7일 <권능의 차원> 및 <응답받는 비결>

9월 6일, 스리랑카 콜롬보 시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는 교단을 초월해 3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하였으며, 강사 길 목사는 ‘권능의 차원’(요 14:12)에 대해 증거하였다. 목회자 만남 시에는 스리랑카 내 만민의 사역을 사모하는 목회자들이 늘고 있으며, 사역을 함께하는 목회자들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9월 7일, 와팔리 시에서 열린 손수건 집회에는 10여 개 교회에서 참석했으며, ‘응답받는 비결’(요 5:8~9)을 전했다. 그 뒤 손수건 기도로 15년 만에 무릎을 구부리고, 23년 된 척추 통증이 사라졌으며, 악한 영에서 놓임받는 등 많은 성도가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사진 4, 9).



당회장 이재록 목사

믿는다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21)

“...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 5:16)

내어 풀무불 곧 지옥의 형벌 가운데 두시게 됩니다(마 13:40-42).

여기서 불법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했으니 진리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며 죄입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곧 죄를 짓는 사람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9~10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주를 믿는다 고백해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갈 5:19~21).

혹여 이런 말씀을 듣고 ‘초신자의 경우 능히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즉시로 죄를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죄를 다 버리지 못했다 해도 기도하고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지요.

그러나 초신자가 아닌데도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에 물 들어가며 죄를 지으면서 믿는다 고백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2.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경우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 “...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

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권면하고 기도해 줌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했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 모독’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이나 사단의 역사라 하면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더러운 귀신이나 사단이라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령 훼방’이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므로 하나님의 일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들을 볼 때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함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는 것을 훼방하는 것이니 무서운 죄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할 꾀계를 세우고 직접 행하는 등 훼방하는 행함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때는 ‘성령 거역’이 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3장 20~30절을 보면 성령을 모독하고 훼방,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악한 사람들은 악한 말을 지어 전파했지요. “그가 미쳤다. 저가 바알세불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

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악한 영의 세계도 철저히 질서를 유지하여 귀신이 귀신을 물리치는 경우는 없으며 사단이 사단을 물리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귀신의 역사라 하며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훼방하며 거역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기뻐하시는 권능의 사람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며 이를 통해 살아 계심을 증거하십니다(요 4:48).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훼방하거나 거역, 모독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깨달아 결코 불법을 행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이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천국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개 언어로 출간된 전세계인의 필독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URIM BOOKS
www.urimbooks.com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응답과 축복의 비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지키기를 원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민 6:24~26).

이러한 축복의 말씀들이 임하려면 공의의 법칙에 맞아야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칙들을 성경에 상세히 기록해 놓으심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영육 간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십니다.

응답과 축복을 받는 데에 중요한 공의의 법칙을 실천함으로 영적 성장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1

한 번 선포된 축복의 말씀, 기도의 위력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 사도 등을 통해 그 뜻을 선포하셨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당시 눈이 어두워져 사람을 식별하지 못하는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된다. 그 후에 자신이 축복한 아들이 장자 예서가 아니었음을 알고 그는 심히 크게 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 축복한 것은 무효로 할 수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결국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다. 비록 방법은 온전치 못했지만 그것을 믿고 사모한 야곱과는 달리 예서는 팔죽 한 그릇에 장

자권을 팔아넘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에 합당했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빌어주는 축복은 결코 허무하게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장받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신 18:22).

따라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축복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되 변함없이 믿는 것이 응답받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공의의 법칙이다(막 11:24).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되 도중에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 소망 가운데 되새긴다.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대로 될 줄을 믿으니 잊어버릴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신속히 받으려면 별미를 드려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 기도가 즉시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게 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별미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창세기 27장 4절에 이삭은 예서에게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고 했다. 이삭은 축복을 빌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심는 행함’이 있어야 함을 알았기에 축복하는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별미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할 때도 반드시 심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한 대로 ‘믿음’이 ‘심는 행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을 공궤했다. 이러한 믿음의 행함이 있었기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심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8~19)고 축복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별미, 곧 사랑과 정성을 내보여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별미’에 속한다(살전 5:16~18).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충성, 사랑’의 일곱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또한 별미이다. 예를 들어, 계명을 지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 다해 지키고자 하고, 충성을 해도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넘치도록 수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고 거두는 법칙, 곧 마음 받을 개간하고 온전한 주일성수와 심 일조를 하며 정도를 걷는 등 이러한 것을 알아서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리는 것이다. 이 외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 물질, 달란트 등 드릴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드리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전도와 심방에 전력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것도 별미가 될 수 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별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행함으로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바란다.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별미, 사랑과 정성을 드려야 한다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9.25~ 10.1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을 만나려면
- 사랑장 17-20
- 천국 13-18
- 십자가의 도 1-2
- 공부잘하는 비결 6-9
- 요한계시록 강해 62-69
- 성령의 9가지 열매 5-9

GCN TV설교

- 악을 미워하는 것 7(이수진 목사)
-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이명목사)
- 영의 세계 56(이희선 목사)
- 민음의 분량 6(신동초 목사)
- 열 재앙 8(정구영 목사)
- 천년왕국 2(김승신 전도사)
-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정리라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몽도튼튼 마음도튼튼(다시해보기) 20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64
- 내 마음의 찬양 39
- 창조와 과학 6
- 모두 드려요 56
- English 5

해외성회 및 신규 프로그램

- 권능 스페셜 3
- 말씀 스페셜 3
-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은 길 33
- 회상(시즌2) 4

GCN HD 채널
ktolleh tv 882번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해요”



벤징 세똥 자매
(21세, 콜롬비아만민교회)

2011년,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어느 날부터인가 베네수엘라에 계시는 부모님과 통화할 때마다 부모님은 한국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중남미 최대 기독교방송인 엔라쎬 방송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튜브나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설교를 자주 들으셨고, 스페인어로 된 이 목사님의 저서 『나의 삶 나의 신앙』, 『영혼육』, 『깨어라 이스라엘』을 읽으며 매우 행복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들을 구역 예배에서 전하시며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2013년 초,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콜롬비아만민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 행사가 있을 때면 콜롬비아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셨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으로 기도를 받은 뒤(행 19:11~12) 아버지는 비개골 암 수술 후유증을, 어머니는 다리 통증을 치료받으셨지요.

그 뒤 제 신앙도 뜨거워져 당회장의 저서 『깨어라 이스라엘』, 『십자가의 도』, 『지혜』, 『지옥』, 『사랑은 율법의 완성』, 『나의 삶 나의 신앙』, 『영혼육』을 읽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치료의 역사도 체험하였지요. 저는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가슴 통증이 심했고 숨도 쉬기 어려웠습니다. 다니엘철야 기도회 전에 장정연 담임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몸이 뜨거워졌는데, 이후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지요.

지난 7월에는 남동생(18세)의 변화에 온 가족이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2년 전, 미국 유학을 떠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동생은 어릴 적부터 비디오 게임을 너무 좋아해 게임에 푹 빠져 가족과 대화도 없고 성격이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인 이희선 목사님이 창립 4주년을 맞아 콜롬비아만민교회에 오셨을 때 집회에 참석한 후 180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당회장님 설교가 너무 좋으면서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 텍스트를 읽으며 혼자서도 기도생활을 잘하고 있지요.

올해 8월, 저는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역시 그동안 보고 듣던 대로 많은 사람이 치료되고, 잠자리가 제 몸에 낱아와 앉으며, 최적의 시원한 날씨로 기온이 조절되는 등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 참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니 너무 행복했지요. 캠프파이어 때에는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꼭 함께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목자의 마음을 느끼며 나도 변화되어 꼭 새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는 확실한 소망과 힘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과 주님, 목사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늘 행복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왼쪽부터 동생, 아버지, 언니, 어머니, 벤징 자매).

“살아 역사하시는 ‘만민’의 하나님, 자랑스럽습니다!”



김미정 집사 (44세, 대전만민교회)

저는 작년부터 ‘2016 만민 하계수련회’를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응답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 저녁에 입 안과 눈, 얼굴에 무안단물(출 15:25)을 뿌리며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작정 기도와 금식으로도 준비하였지요.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난시가 심해서 사물이 두세 개로 보이며 몸이 피곤하면 안구가 빠질 것처럼 고통스럽고 이로 인해 머리도 자주 아팠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경부터는 목이 약간 아프더니 점차 통증이 심해져 가만히 있어도 육신육신 아팠지요. 또 오른쪽 귀 주변에 통증이 있어 누르면 아팠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인후염과 귀에 염증이 있었습니다.

하계수련회가 시작된 8월 8일, 저는 오른쪽 편마비로

고생하시던 친정어머니(서오주 권사, 75세)를 모시고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녁 교육 후 은사집회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던 중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누가 향수를 뿌리나 주위를 둘러봐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 내가 치료받겠구나!’ 싶었지요. 눈을 떠보니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안 보여 찾아보니 단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4년 전부터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 팔다리 저림 증상이 있었는데 기도받던 중 증세가 사라져 간증하려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사진).



간증을 마치신 어머니를 모시고 단에서 내려오는데, 주변이 맑게 갠 아침같이 깨끗이 보였습니다. 전에는 밤이 되면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더 안 보였는데 신기했습니다. 통증이 있던 오른쪽 귀 주변도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침을 삼켜 보았는데 목도 아프지 않았지요. 모든 것을 치료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는 “만민이 왜 만민인지 알겠다.”며 “만민이 와서 은혜받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온 것 같다. 어디서 이런 은혜를 만나!” 하시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목과 귀는 물론 눈 통증과 그로 인한 두통 증상도 없으며 시야가 밝아져 선명하게 보입니다. 파란 하늘과 나무, 꽃들... 날마다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치료해 주시며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상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8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역시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감동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김춘호 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